

# 독서행사, 이제 '계몽' 과 '선도' 에서 벗어나자

조윤희 | 부산 시립시민도서관 사서



“독서진흥이 한때 ‘봄’ 이나 ‘유형’ 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핀란드 국민이 자기 전에 무슨 껌을 씹는다는 광고가 있는데, 그것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문화, 독서문화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

공공도서관이 국민독서진흥을 위해 독서주간을 두기 시작한 때가 1953년이다. 매년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주간 행사를 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독서의 달(9월)로 바뀌었다. 독서주간 외에 도서관주간(1964년 시작. 4월 12일~18일) 행사도 열리고 있다. 적어도 한국전쟁 직후 아직 전시 상황이 미처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독서의 중요성을 전국민에게 알리고 독서할 것을 권장하는 진흥책을 썼다는 말이다. 1900년대 초 대동서관 등을 설립해 백성을 ‘계몽’ 하려 했던 입장과 비슷했다.

그때 이후 공공도서관은 변함없이 ‘독서인구 저변 확대’ 와 ‘국민독서 생활화’ 를 위해 거리캠페인, 양서 바꿔보기, 모범이용자 표창, 독후감상문대회, 강연회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해왔다. 중학생 독서교실반 이름이 ‘안

보반’ 과 ‘총력반’ 이었던 웃지 못할 시절에는 ‘새마을운동과 함께 독서를’ ‘아는 것이 멸공의 지름길’ ‘독서는 나라의 힘’ 등이 주요 표어였다. 강한 ‘계몽’ 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1980~90년대 들어서 ‘책은 만인의 것’ ‘책 속에 길이 있다’ 를 거쳐 ‘도서관, 세계로 향해 열린 문’ ‘읽으면 행복합니다’ 등으로 계몽적 성격은 많이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캠페인성 행사임에는 틀림없다.

### 행사를 위한 독서진흥행사 되지 말아야

공공도서관의 또 다른 독서진흥제도로는 독서교실과 회원제 도서대출이 있다. 독서교실은 1961년 국립중앙도서관 주최로 단 두 개의 도서관이 시작했으나 점차 그 수가 많아져 지금은 거의 모든 도서관이 여름, 겨울 독서교실과 학기 중의 1일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유아에서 중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초등학교 4, 5학년이 가장 많다.

1980년대 말부터 폐가제였던 서가가 서서히 개가제로 바뀌면서 회원제로 독서를 대출해주는 도서관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도서관 업무의 기본이 도서대출이다.

이런 제도들은 모두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임무, 즉 국민의 서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도서관주관과 독서의 달은 이것이 독서 생활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평가되지 않은 채 해마다 비슷비슷한 ‘행사’ 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런 행사들도 필요하다. 다만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으려면 탄탄한 이용자층이 생겨야 하고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행사가 도서관과 이용자가 함께 벌이는 축제 한마당이 될 수 있다.

독서교실은 30년 동안 프로그램에서 별 변화 없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비교적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왔다. 근년에 들어서는 일률적인 독서감상문 작성에서 NIE, 스토리텔링, 그림책 만들기 등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화됐고 참가자들도 선착순 접수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참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참가자들의 독서력, 이해력에 대한 사전진단이 없고 독서회원 가입 이외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없는 실정이라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다양한 사전진단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독서교실을 좀더 전문화해야 할 것이다.

### 한쪽에선 예산낭비, 한쪽에선 예산 삭감

도서대출도 마찬가지다. 지금 등록된 독서회원 가운데 허수는 얼마나 많은가. 그야말로 독서가 생활화된 일부 이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용자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독서회원으로 등록하고 그나마 반납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도서관으로부터 멀어져간다. 도서관이 좀더 가까운 곳에서 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독서생활을 지켜보고 지원한다면 독서회원의 허수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공공도서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장서가 모자란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중 공공도서관 건립비(1백억원, 올해 65억원)와 자료구입비(150억원, 올해 50억원)를 삭감할 방침이라 우리의 희망을 다시 한번 꺾고 있다. 반면 2002년도까지 1,368억원이 투입되는 정보화사업은 여러가지 파행을 거듭하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서진흥이 한때 ‘봄’ 이나 ‘유형’ 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핀란드 국민이 자기 전에 무슨 껌을 씹는다는 광고가 있는데, 그것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문화, 독서문화도 따라해보는 건 어떨까. ■

조윤희씨는 1990년부터 부산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해 왔고, 현재는 부산 시립시민도서관 사서로 재직중이다.